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십자가 현양 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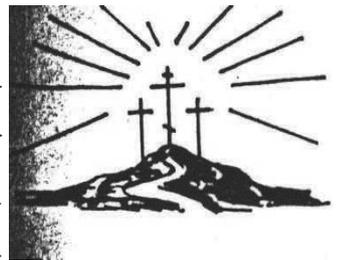
- 십자가 현양 축일 전주일
 성 고르넬리오스 백인대장 순교자
 제 5조, 조과복음 3
 조과에서 십자가 현양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5조 부활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갈라디아 6:11~18 / 봉독서 303
 - 복음경 : 요한 3:13~17 / 116, B 5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십자가 현양 축일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신성한 상징은 거룩한 십자가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나쁜 사람들과 범죄자들의 사형을 집행했던 도구였습니다. 불명예와 저주의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인 세상의 구세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때부터 십자가는 “거룩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에, 카타콤에 새겨졌고, 박해시대가 지난 후에는 그리스도인 왕들의 왕관에 장식되었고, 교회의 꼭대기에 높이 올려졌고,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서는 9월 14일을 십자가 현양 축일로 기념합니다. 특히, 이날 예루살렘에서는 성 엘레니 황후에 의해 십자가를 찾게 된 것에 대해 성당의 암본(설교대)에서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리면서 “십자가 온 인류의 보호자, 십자가 교회의 아름다운 꽃, 십자가 임금들의 권능, 십자가 신자들의 주춧돌, 십자가 천사들의 영광, 십자가 악마들의 고통”(엑사쁘스펠라리온)이라고 찬양합니다.





신앙의 분명한 목적

무엇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먹거리, 입을 옷, 잠잘 곳이 여유롭지 않은 물질적 빈곤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살아가는 데 불편할 뿐입니다. 정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크진 않지만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좋은 쉼터가 되었죠. 노인은 야자수 그늘에서 목마르고 지친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주는 것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물을 얻어 마신 사람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몇 푼의 동전을 주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했지만, 점점 쌓여가는 동전을 보면서 그만 욕심이 생겨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샘터를 최신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샘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야자수 때문에 그런가?’ 하며 나무를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야자수 그늘도 없어졌고 샘물도 바짝 말라 버렸습니다. 오아시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족을 모르던 욕심이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소박했지만 기쁘고 보람 있었던 자신의 삶을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행복하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

이었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행복을 눈앞에 두고도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족하지 못한 채 끝없이 채워 넣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모르는 신앙생활은 회의감이 들고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고민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머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머리되시는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주님께서 변모하실 때 제자들의 눈에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루가 9,36)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 따라가야 합니다. 참다운 인생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이고 생명의 길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가야 할 곳을 알고 가는 이들의 삶은 행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항상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안전한 때는 결코 없습니다

정교회에서 성찬예배 때 신앙의 신조로서 니케아신경을 고백하기 바로 전에 사제나 보제가 “문과 문...”이라고 가락을 넣어 읊조립니다. 이 말은 교회의 초기를 생각나게 하는데, 이때는 외부의 침입자들(당시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찾아내 붙잡거나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교회의 문들이 단한 채로 잠겨있어야만 하였습니다.

몇백 년 뒤 이슬람교인인 터키인들의 치하에서 공적으로는 이슬람교인으로 살지만 실제로는 정교 그리스도인인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집안 바닥에 있는 비밀스런 문 아래에 또는 알려지지 않은 동굴 속에 숨겨진 교회의 성찬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장소들이 들리게 되면 노인에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곤 했습니다.

다시 몇백 년 뒤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회색빛의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촌에서 몰래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때로는 밤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찬예배를 위해 몇 안 되는 교인들이 도시나 마을의 바깥에 모이면 당국자들을 피해 멀리서 모셔온 사제가 집전하곤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만일 발각된다면 곧바로 처형되거나, 아니면 더 나쁘게 집단수용소에 갇혀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니다.

주일이든 축일이든 정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날보다도 전혀 더 안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의 로마 주변에 있는 지하무덤(카타콤)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유해가 남아있습니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언제나 위험한 일이었으며,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니다.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대교구

⇒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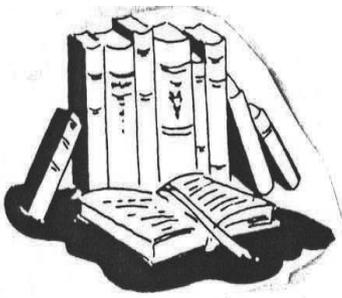
9월14일 월요일은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교회의 큰 축일로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들어올림으로써 십자가의 힘을 받고 영적 생활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 날은 성 대 금요일과 같은 큰 축일로 엄격한 금식일입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장마로 서울 성 니콜라스 성당, 성 막심 성당, 대교구 사무실, 서울 성당 사무실, 지하선교회관에서 비가 새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비 피해 복구와 개선을 위해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의 신자 분들께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3,350,000원을 특별헌금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자선의 도움을 주신 인천 성당 신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비 피해 복구와 개선을 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성찬예배와 성서공부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당 예배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대교구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토요일 대만과와 주일 성찬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성서공부도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서공부는 금요일 오전 11시를 기본으로(특별한 사정에 따라 실시간 시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유튜브 “한국정교회” 계정에 올라가 있으니, 시간이 되시는 대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추석을 맞이하여 용미리 교회 묘지의 벌초 작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 교회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묘지 관리비는 100,000원입니다.

우리은행 077-041887-01-103 / 예금주 : 한국정교회유지재단

